

기술확산 통합모델을 통한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의 영향요인 분석*

Influencing Factors for the Acceptance of Open Access Institutional Repository Using the Integrated Technology Diffusion Model

정 영 미(Youngmi Jung)**

배 정 희(Junghee Bae)***

<목 차>

I. 서론	IV.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의 영향요인 분석
II. 기관 리포지터리와 기술확산 통합모델	1. 표본의 기초통계
1. 기관 리포지터리 개념과 현황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2. 기술확산 통합모델	3. 수용요인별 기술통계
III. 연구 설계	4. 수용에 따른 수용요인 차이분석
1. 연구대상 및 적용모델	5. 수용의 영향요인 분석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V.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확산을 위해 리포지터리 수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기관과 비수용기관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질문지는 수정된 기술확산 통합모델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기술확산 통합모델은 혁신이나 기술이 특정 요인이나 계기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분석결과,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에는 사회적 특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관의 특성, 혁신저항특성, 시스템 특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리포지터리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키워드: 리포지터리, 오픈 액세스, 혁신확산, 기술수용, 혁신저항

ABSTRACT

For the spread of the open access institutional repository in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of the repository. To gather the research data,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acceptance and non-acceptance institutions of the open access repositori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based on the revised R-TDM. Integrated Technology Diffusion Model is a theory that seeks to explain how, why, and at what rate new technology and innovations spread through specific factors and cultures. According to the data analyzing, technology acceptance level of social factors was turned out the most effective factors to make a decision to accept the repository to their institutions. And institution factors, innovation resistance factors, and system factors were arranged in order of strong influence. This study will provides the basis for developing policies for dissemination and spread of repositories in Korea.

Keywords: Repository, Open access, Innovation diffusion, Technology acceptance, Innovation resistance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5AA136)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omjung@deu.ac.kr) (제1저자) (교신저자)

*** 동아대학교 도서관 전자정보팀 사서(baejh2@gmail.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5년 11월 30일 •최초심사: 2015년 12월 1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1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529-549,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12.529]

I. 서론

리포지터리는 현행의 학술유통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술정보의 접근과 확산을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의 강력한 실천방안 중 하나이다. 현재 세계에는 3000여개의 리포지터리가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구축한 것으로 기관 또는 기관의 소속연구자가 생산한 성과물에 대한 관리·보존의 도구로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지식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2004년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dCollection 시스템을 대학의 학위논문 유통을 위해 보급하였고 최근에는 오픈 액세스 실현과 발신력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편과 함께 학위논문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술논문 축적과 유통으로 그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dCollection은 정보자원의 획득, 배포 과정에서 구조적인 상이점으로 인해 세계적인 리포지터리 통계들에서 누락되고 있어, 완전한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방형 리포지터리 구축 사업인 OAK-IR (Open Access Korea - Institutional Repository)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2013년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는 dCollection이 대학을 중심으로, OAK-IR이 연구소 및 기타 기관을 중심으로 이원화되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양상이나 명확한 구분은 없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리포지터리 확산과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확산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수용모델, 혁신확산이론, 혁신저항이론 등의 기술확산과 관련된 제이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디지털도서관이나 도서관의 IT 기술수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한 연구(Thong, Hong, and Tam 2012; Sheikhshoaei & Oloumi 2011; Park et al. 2009; Nov & Ye 2009)들이 소수 존재한다. 국내에서는 황혜경(2011)이 혁신수용이론과 혁신장애이론을 접목하여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요인을 도출한 바 있으며 김지현(2011)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혁신확산이론을 적용하여 리포지터리 수용요인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기관과 비수용기관을 대상으로 기술확산 통합모델에 기반을 둔 질문지를 사용하여 질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여부는 전 세계의 개방형 리포지터리에 대한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ROAR(Regist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과 OpenDOAR(The Directory of Open Access Repositories)의 등록 여부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델은 저자가 이전 연구(배정희, 정영미 2015)에서 설계한 리포지터리를 위한 기술확산 통합모델(R-TDM: Repository-integrated Technology Diffusion Model, 이하 R-TDM)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과 비수용기관의 수용요인에 대한 차이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리포지터리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기관 리포지터리와 기술확산 통합모델

1. 기관 리포지터리 개념과 현황

리포지터리는 디지털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고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현재의 학술정보유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져 왔다. 즉 리포지터리는 출판 유통 구조의 분산으로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재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운영기관의 학술성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지표로서 기관의 가시성, 위상, 그리고 공공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Crow 2002, 2).

리포지터리는 구축 주체와 대상에 따라 기관 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 주제 리포지터리(subject repository), 그리고 포맷 리포지터리(format repository)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 리포지터리는 특정 대학이나 또는 유사한 기관에 걸쳐 가능한 다양한 자원의 유형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icholas et al. 2012, 196). 반면 주제 리포지터리는 특정한 주제 분야의 학술정보에 제한해서 수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주제의 학회 회원, 연구자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된다. 포맷 리포지터리는 학위 논문, 연구 데이터, 디지털 이미지 등과 같이 특정한 자원의 유형에 제한해서 수집하는 리포지터리이다.

기관 리포지터리는 기관 커뮤니티의 지적 생산물을 획득하고 보존한 디지털 컬렉션(Crow 2002, 2)이자 기관 혹은 기관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의해 생산된 디지털 자원들을 관리하고 배포하기 위해 기관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집합(Lynch 2003, 2)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관 리포지터리는 수용하는 기관의 측면에서는 소속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보존·관리하는 시스템이자 연구 성과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기관의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기관 외부의 측면에서 리포지터리는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개방과

참여에 의한 학술정보 공유의 토대이자 이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학술성 있는 자원들을 축적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이다(정영미 2014, 429).

기관 리포지터리는 학술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도서관, 교수나 연구자, 출판사, 연구재단 등의 학술유통 과정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Crow 2002, 20-27). 또한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과 운영 또한 이들의 인식 및 태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수용의 영향요인을 수용기관 즉, 도서관의 입장에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개방형 리포지터리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ROAR과 OpenDOAR에 등록되어 있는 전 세계의 리포지터리는 2015년 11월 1일 기준 각각 4,125개와 2,989개이다. 두 곳 모두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리포지터리는 2,500개 이상이다. 10년 전인 2005년에 불과 100여개에 지나지 않았던 기관 리포지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penDOAR(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등록된 개방형 리포지터리는 불과 28개로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 190개, 인도 71개, 터키 62개 등과 비교하여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시작한 dCollection 사업을 통해 236개의 대학 기관 리포지터리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구축된 리포지터리가 개방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록되지 못했고 이것은 우리나라 리포지터리의 대외적인 발신력에 문제를 야기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개방형 리포지터리 구축은 기관 리포지터리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한 OAK-IR 보급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이다. 이전에 구축된 KAIST와 서울대학교의 기관 리포지터리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대부분은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되었다. 이러한 국가적인 확산 정책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28개의 기관 리포지터리만이 운영되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들보다 그 수용 정도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확산 통합모델

기술확산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특정 요인이나 계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확산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이 혁신확산이론(innovation diffusion theory),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그리고 혁신저항이론(innovation resistance theory)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뉴미디어와 광고, 경영학, 정치학,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어 왔다.

혁신확산이론은 하나의 혁신이 시간을 두고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여 특정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수용자가 지각한 혁신이 상대적 이점, 적

<표 1> 우리나라 기관 리포지터리 현황(배정희 2015, 13)

기관명	리포지터리	주제	시작 년도
KAIST	KOASAS	학술	2007
서울대학교	S-Space	학술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SA Open Repository	보건	2010
아주대학교 의학문헌정보센터	AJOU Open Repository	의학	20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Repository	학술	2010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Repository	소비	20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BB Open Repository	생명공학	2010
인하대학교	D-Space@inha	학술	20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Repository	학술	2010
OAK 센트럴	OAK Central	학술	2011
충북대학교 의학연구정보센터	의학연구정보센터 Repository	의학	2011
한국전기연구원	KERI Repository	전기	20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 Repository	해양	201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Repository	보건	2012
극지연구소	KOPRI Repository	극지	2012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Repository	조세	2012
경기대표도서관	경기대표도서관 Repository	도서관	2012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Repository	의학	2012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Repository	서울정책	2012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Repository	서울시	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Repository	직업훈련	201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UNIST Repository	학술	2013
k디벨로퍼디아	k디벨로퍼디아 Repository	학술	2014
울산과학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Repository	학술	2014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Repository	학술	2014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Repository	기록	2014
코트라	KOTRA	무역	2014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Repository	학술	2014

합성, 시험가능성, 관찰가능성이 크면서 복잡성이 덜할 때 다른 혁신들보다 더 빠르게 채택되며 특히 처음 두 가지 속성인 상대적 이점과 적합성은 혁신의 채택률을 설명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Rogers 2005). 리포지터리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김지현(2011)은 혁신확산이론을 적용한바 있으며 이 연구는 기관 리포지터리를 수용한 미국의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관 리포지터리 인식경로, 혁신으로써 기관 리포지터리 특성, 기관 리포지터리 계속 수용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은 실제 기술 수용에서 기술 이용이 개인의 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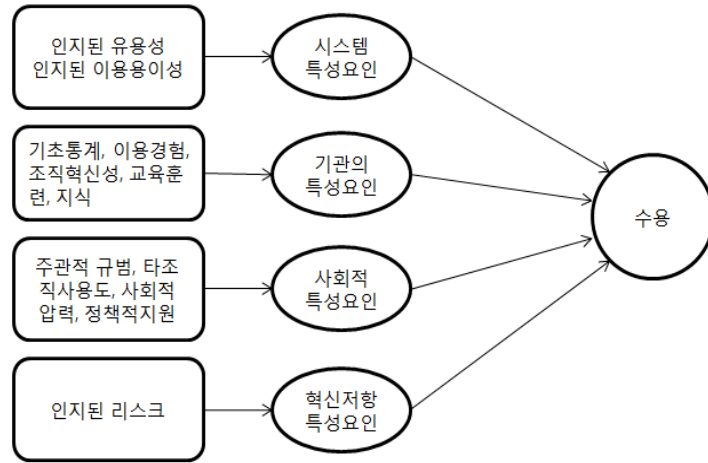
가정하고, 시스템 이용에 대한 더 나은 예측 및 설명을 목표로 기술 수용과 관련하여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이용용이성에 대한 새로운 측정법을 제시하였다(Davis 1989, 320). 인지된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 사용에서 그들의 업무 성과 향상에 대한 기대 정도를 의미하고 인지된 이용용이성은 특정 시스템이 노력 없이 쉽게 사용가능한지를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반면 혁신저항이론은 혁신특성과 확산 메커니즘, 그리고 소비자 특성을 통해 혁신 저항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모델로 제시하며, 수용과 저항이 혁신의 과정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저항은 혁신을 마칠 때의 소비자의 일반적인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Ram 1987).

각각의 기술확산 관련 초기 이론이나 모델이 현재까지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기술이나 서비스의 확산에 대한 보다 구조화된 설명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최근에는 이들 이론들을 결합하거나 수정한 기술확산 통합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리포지터리의 수용과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소수의 연구에서 통합모델을 적용한바 있다. 황혜경(2011)은 혁신수용모델과 혁신장애이론을 결합하여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대학의 리포지터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수용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합모델은 혁신특성으로 상대적 이점, 현재 가치와 규범과의 적합성, 복잡성을 포함하고, 개인특성은 동기부여, 자기만족, 자기 효능감(자신감), 타인 돕기를 좋아하는 특성, 가치지향성, 이전 혁신 경험, 기존 체제에 대한 태도, 정보 공유 및 보존에 대한 기존 관습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직특성은 조직의 사회적 기여 문화, 의무화 정책, 인센티브제도 도입, 시스템 간 연계체제 구축을 포함하였다.

배정희와 정영미(2015)는 정보시스템이나 뉴미디어 확산에 사용된 다양한 통합모델을 분석하여 리포지터리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R-TDM을 설계하고 우리나라의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 설계한 R-TDM은 혁신확산모델, 기술수용모델, 그리고 혁신저항이론을 결합한 모델이며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시스템 특성요인, 기관의 특성요인, 사회적 특성요인, 그리고 혁신저항 특성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시스템 특성요인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이용용이성으로 구성되었고 기관의 특성요인은 기관의 기초통계, 이용경험, 조직혁신성, 교육훈련, 리포지터리에 대한 사전 지식정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특성요인은 주관적 규범, 타조직사용도, 사회적 압력, 정책적 지원 등이며, 혁신저항 특성요인은 리포지터리 수용을 거부할만한 인지된 리스크들로 구성되었다. 이 모델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를 수용한 기관들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리포지터리 수용기관과 비수용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모델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수집 및 분석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였다.



(배정희, 정영미 2015, 232)

<그림 1> R-TDM

Ⅲ.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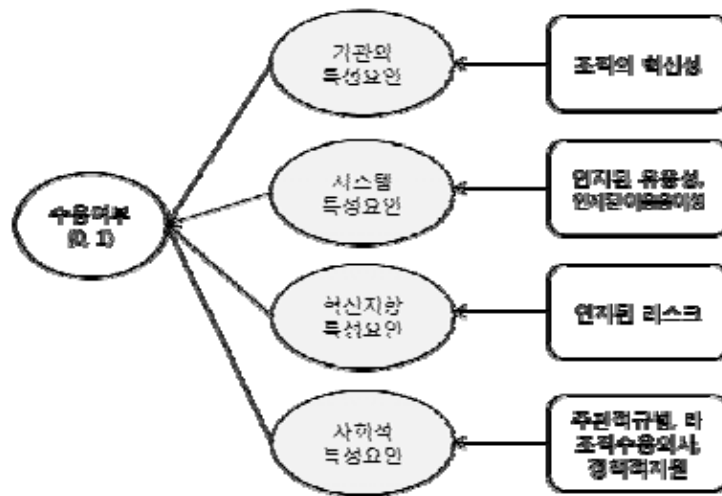
1. 연구대상 및 적용모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를 수용하였거나 현재(2015년 10월 3일 기준)는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학 및 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정된 R-TDM을 적용하여 리포지터리 수용의 영향요인을 연구 조사하였다.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나라의 개방형 리포지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OAK Portal과 세계적인 리포지터리 통계 및 목록을 제공하는 ROAR와 OpenDOAR을 참조하였고 수용기관은 앞의 <표 1>과 같이 28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비수용기관에는 dCollection의 확대 서비스에 따라 주요 대학도서관들을 제외하고, 앞으로 OAK-IR의 잠재적인 수용 대상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회원 81개 기관과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회원 기관인 140개를 포함하였다.

배정희와 정영미(2015)의 연구에서 설계한 R-TDM은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기관을 대상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비수용기관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문항의 경우 수용과 비수용기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기관과 비수용기관을 대상으로 수용의 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해 적용된 수정된 R-TDM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R-TDM에서 ‘수용’은 수용(1)과 비수용(0)의 값을 가지는 변인으로 수정하였고, 처음부터 이 두 기관을 구분하여 질문 조

사하였기 때문에 모델의 앞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구성차원은 기관의 특성요인, 시스템 특성요인, 혁신저항특성요인, 그리고 사회적 특성요인 등으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관의 특성요인에서 리포지터리 담당자의 경력이나 근무 경력과 같이 비수용기관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은 제외하였고, 사회적 특성요인에는 비수용기관을 위해 기관의 리포지터리 도입 검토여부를 추가 구성하였고 벤치마킹 대상은 수용기관에서는 도입시 벤치마킹한 대상이, 비수용기관에서는 검토시 조사해본 기관으로 이원화되었다.



<그림 2> 수정된 R-TDM

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과 비수용기관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질문조사법이 실행되었다. 수용기관에 관한 데이터는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배정희와 정영미(2015)의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4월 12일까지(14일간) 진행된 웹서베이 결과를 일부 사용하였다. 비수용기관을 대상으로 한 웹서베이는 앞에서 언급한 회원 기관 221개 기관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2015년 11월 9일~13일에 응답한 20개 기관의 결과만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의 수용과 비수용기관의 집단 크기 차이가 매우 크고, 따라서 수용기관에서만 비수용기관의 응답 비율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1차 서베이 응답 개수에 2차 서베이 결과를 맞추었다. 응답은 모두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고 수용기관의 회수율은 28개 기관 중 15기관의 응답으로 53.57%이었고, 비수용기관의 회수율은 2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의 응답으로

9.05%이었다. 벤치마킹 대상과 같은 일부 서술형 질문에 대해 부족한 응답은 웹서베이 기간에 전화 면담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웹서베이를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기초통계, 기관의 특성요인, 시스템 특성요인, 혁신저항 특성요인, 그리고 사회적 특성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수용과 비수용기관을 위해 일부의 질문 문항이 이원화되었다. 구성된 총 질문 문항은 35개이다. 조직의 혁신

<표 2> 질문지 구성

구성차원	수용요인과 질문 문항		문항수
기초통계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		1
	리포지터리 운영주체(수용)		1
	리포지터리 담당 기간(수용)		1
	타 리포지터리 사용		1
	리포지터리 도입 검토(비수용)		1
	도입시(수용) 또는 검토시(비수용) 벤치마킹 기관		1
	리포지터리 관련 교육 경험		1
	리포지터리 인지(비수용)		1
기관의 특성요인	조직혁신성	리포지터리 인지경로	1
		혁신수용정도 위험요소 감수의지	2
시스템 특성요인	인지된 유용성	혁신수용정도	6
		위험요소 감수의지	
		전반적인 인지된 유용성	
		학문적 명성을 통한 이미지 향상	
		학술교류의 새로운 장 제공	
		접근성 향상	
	인지된 이용용이성	사회적 기여	6
		지적생산물의 장기보존 및 관리용이	
		전반적인 인지된 이용용이성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획득	
		셀프아카이빙을 통한 업무 감소	
		지적생산물의 일괄적 관리	
혁신저항 특성요인	인지된 리스크	기술 습득	8
		유지보수 및 관리	
		전반적인 인지된 리스크	
		업무가중	
		기밀자료 누출 가능성	
		특별한 인센티브 없음	
		유지보수 및 관리의 복잡성	
		경제적 부담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적 특성요인	주관적규범	저작권 및 표절 불안	2
		타 기관의 평가	
	정책적지원	타 기관의 수용 의사	2
		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도	
		국가차원 사업 영향 정도	2
총 35문항			

수용 정도, 위험 감수 의지, 시스템 특성요인 구성요인들, 사회적 규범, 타기관 수용의사, 정책적 지원 등의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부정, 7점:매우긍정)를 사용하였다. 반면 인지된 리스크에 관련된 문항들은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반대로 7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위험, 7점: 전혀위험하지않음)를 사용하였다.

수용기관 및 비수용기관 응답 데이터 중 문항에 대한 응답 누락이 많은 2개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33개이다. 기초적인 통계 이후,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응답에 대한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고, 결과를 토대로 요인축소 작업이 분석 전에 선행되었다.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 이외에도 수용과 비수용기관의 수용요인에 대한 차이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구성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s v.22이다.

IV.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의 영향요인 분석

1. 표본의 기초통계

웹서베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표본의 기초통계를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비수용기관의 경우에도 표본의 94.4%가 리포지터리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기관 중 개방형 리포지터리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는 곳은 8개로 전체의 44.4%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기초통계

구성차원	문항 내용	구분	빈도(%)
기초통계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	수용	15(45.5)
		비수용	18(54.5)
	타 리포지터리 사용 (dCollection 포함)	사용	16(48.5)
		사용안함	17(51.5)
	리포지터리 관련 교육 경험	있음	15(45.5)
		없음	17(51.5)
		무응답	1(3.0)
	리포지터리 도입 검토(비수용)	검토중	8(44.4)
		검토한적없음	9(50.0)
		무응답	1(5.6)
	리포지터리 인지(비수용)	알고있음	17(94.4)
		알지못함	1(5.6)

리포지터리의 주요 인지 경로는 OAK-IR 사업(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사업)의 공문이나 도메리 게시글이라고 명확히 언급한 경우가 모두 12기관으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각종 세미나나 논문, 대학에서의 수업, 동료, 신문기사 등의 다양 정보원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OAK-IR 사업이 우리나라 개방형 리포지터리 인식이나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Collection을 포함한 타 리포지터리 사용과 리포지터리 관련 교육 경험여부가 리포지터리 수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리포지터리 관련 교육 경험은 수용기관의 경우 담당자의 교육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유의수준($p \leq 0.05$)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과 타 리포지터리 사용과의 교차분석에서는 개방형 리포지터리를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 리포지터리 사용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고, 반면 비수용기관의 경우에는 타 리포지터리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리포지터리 사용 기관은 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dCollection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개발 리포지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인터넷에서만 사용가능한 리포지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에서 개방형 리포지터리와 타 리포지터리 모두를 수용한 곳은 4개 기관뿐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이미 타 리포지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개방형 리포지터리를 수용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의 차이는 유의확률 0.0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과 타 리포지터리 사용, 교육 경험 교차분석

		개방형 리포지터리		Pearson카이제곱 (유의확률)
		수용	비수용	
타 리포지터리 사용 (dCollection 포함)	사용	4	12	5.241 (.022)
	사용안함	11	6	
리포지터리 관련 교육 경험	있음	9	6	2.821 (.244)
	없음	6	11	
	무응답	1	0	

개방형 리포지터리의 기관내 운영주체는 도서관, 정보자료실, 개발자료팀, 정보관리팀과 같이 모두 도서관과 유사기관이었으며 담당자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헌정보학 전공자로 나타났다. 리포지터리 담당자의 경력은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까지 나타났으며 평균 2.53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개방형 리포지터리 도입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입 또는 검토시 벤치마킹했던 기관을 조사해본 결과, 해외는 MIT의 DSpace와 국내는 서울대의 S-Space, KAIST의 KOASAS, 경기대표도서관의 Repository가 각각 2번씩 언급되었고 이 외에 UNIST Repository, 홍콩대학의 Repository 등이 언급되었다.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정된 R-TDM은 전통적인 기술확산 모델이나 이론들에 기반을 두긴 했지만 세 가지 이론을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구성차원이나 세부적인 요인들의 구성이 수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용 모델의 타당도 검증에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용요인에 포함된 측정변수 중 회귀분석을 위해 구성된 전반적인 인지된 유용성, 전반적인 인지된 이용용이성, 전반적인 인지된 리스크를 제외하고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모두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를 채택하였다.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 1.0이상과 요인적재치 0.5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 적재치 0.40이상, 0.50이하이었던 인지된 리스크의 업무가중과 특별한 인센티브 없음은 요인분석에서 변수 선정에 대한 KMO와 Bartlett의 검정 수치를 높이기 위해 제거하였다. 그 결과 KMO 표본 적합도는 0.702(p=0.000)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적당한 편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기관의 특성요인 중 기관의 혁신수용정도가 제거되

<표 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차원	세부 문항		요인적재치	공통성
기관의 특성요인	조직혁신성	위험요소 감수의지	.505	.898
시스템 특성요인	인지된 유용성	학문적 명성을 통한 이미지 향상	.527	.891
		학술교류의 새로운 장 제공	.529	.818
		접근성 향상	.759	.847
		사회적 기여	.623	.811
	인지된 이용용이성	지적생산물의 장기보존 및 관리용이	.763	.808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획득	.748	.813
		셀프아카이빙을 통한 업무 감소	.579	.741
		지적생산물의 일괄적 관리	.695	.832
		기술 습득	.643	.711
		유지보수 및 관리	.627	.858
혁신저항 특성요인	인지된 리스크	기밀자료 누출 가능성	.753	.835
		경제적 부담	.686	.792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	.610	.788
		저작권 및 표절 불안	.797	.785
사회적 특성요인	주관적규범	타 기관의 평가	.633	.907
		타 기관의 수용 의사	.574	.824
	정책적지원	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도	.697	.591

었고, 혁신저항 특성요인 중 인지된 리스크의 업무가중, 특별한 인센티브 없음, 유지보수 및 관리의 적합성 문항이 제거되었다. 사회적 특성요인에서는 정책적 지원의 국가차원 사업 영향 정도가 제거되었다. 나머지 문항들에 대해서는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이 모두 0.4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축소 후 분석에 사용된 최종적인 문항은 조직혁신성이 1개 문항, 인지된 유용성이 5개 문항, 인지된 이용용이성이 5개 문항, 인지된 리스크가 4개 문항, 주관적 규범이 2개 문항,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1개 문항이다.

요인 축소 후, 다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준요인을 대상으로 표본으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모든 요인이 Cronbach's α 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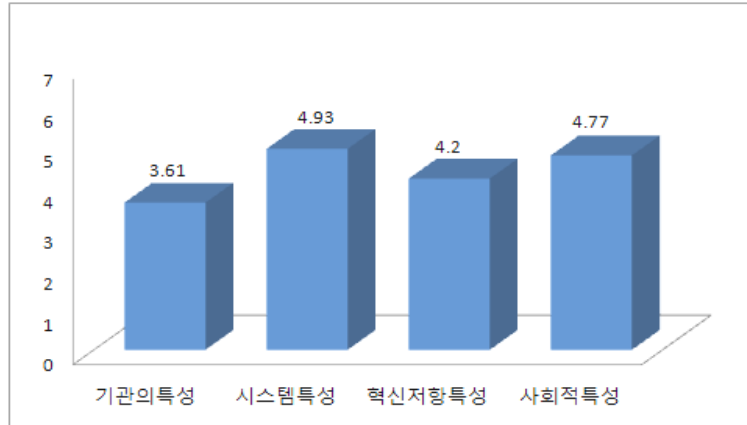
<표 6> 신뢰도 분석 결과

기준 요인	세부 문항 수	Cronbach's α
인지된 유용성	5	.792
인지된 이용용이성	5	.789
인지된 리스크	4	.777
주관적 규범	2	.863

3. 수용요인별 기술통계

요인분석을 통해 제거된 문항을 제외하고, 수용요인의 구성차원별 기술통계 값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리포지터리의 시스템 특성요인이 평균 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특성요인이 평균 4.77, 혁신저항 특성요인이 4.20, 그리고 기관의 특성요인이 3.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용요인별 기술통계 값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인지된 유용성이 평균 5.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적 지원이 평균 5.18로 나타나 리포지터리 수용에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부 문항별로는 리포지터리는 접근성 향상에 가장 유용하게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지적생산물의 장기보존 및 관리용이에 유용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다음은 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도, 사회적 기여에 용이, 지적생산물의 일괄적 관리에 이용용이성이 평균 5점 이상의 수용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인 4점 이하로 수용에 크게 중요하지 않게 인지되고 있는 세부 요인은 기관의 위험요소 감수 의지와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 셀프아카이빙을 통한 업무 감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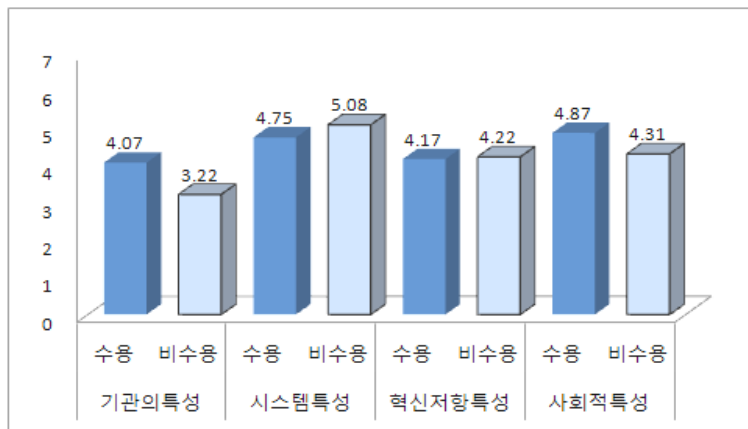
〈그림 3〉 수용요인의 구성차원별 기술통계

〈표 7〉 수용요인별 기술통계

수용요인과 세부 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조직혁신성	위험요소 감수의지	3.61	1.171	3.61 (1.171)
인지된 유용성	학문적 명성을 통한 이미지 향상	4.85	1.228	5.20 (1.113)
	학술교류의 새로운 장 제공	4.88	1.431	
	접근성 향상	5.88	.893	
	사회적 기여	5.09	1.400	
인지된 이용용이성	지적생산물의 장기보존 및 관리용이	5.73	1.232	4.66 (1.156)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획득	4.64	1.365	
	셀프아카이빙을 통한 업무 감소	3.94	1.638	
	지적생산물의 일괄적 관리	5.09	1.444	
	기술 습득	4.33	1.362	
인지된 리스크	유지보수 및 관리	4.55	1.201	4.20 (.836)
	기밀자료 누출 가능성	4.12	1.032	
	경제적 부담	4.00	1.346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	3.79	1.516	
주관적규범	저작권 및 표절 불안	4.30	1.159	4.56 (.894)
	타 기관의 평가	4.76	1.001	
	타 기관의 수용 의사	4.36	1.025	
정책적지원	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도	5.18	1.629	5.18 (1.629)

4. 수용에 따른 수용요인 차이분석

수용요인에 대한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과 비수용기관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수용여부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기관의 특성요인과 사회적 특성요인에서는 수용기관이 비수용기관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시스템특성요인에서는 비수용기관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혁신저항 특성에서는 다소의 차이로 비수용기관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개방형 리포지터리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유사기관이나 외부의 환경, 즉 사회적 특성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수용하였다고 여기는 반면 비수용기관의 경우에는 개방형 리포지터리의 수용이 이들 자체 시스템이 지니는 유용성이나 이용용이성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수용여부에 따른 수용요인의 구성차원별 평균차이

수용요인과 세부사항별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과 비수용에 따라 위험요소 감수인지, 지적생산물의 일괄적 관리, 타 기관의 평가, 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도의 수용요인을 인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leq 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리포지터리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도가 평균 3.87로 보통보다도 아래인 반면 비수용기관에서는 평균 6.28로 수용요인으로서 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8〉 수용에 따른 수용요인 차이분석

수용요인과 세부 문항		평균		t	p값
		수용	비수용		
조직혁신성	위험요소 감수의지	4.07	3.22	2.180	.037
인지된 유용성	학문적 명성을 통한 이미지 향상	5.20	4.56	1.533	.136
	학술교류의 새로운 장 제공	4.93	4.83	.197	.845
	접근성 향상	5.80	5.94	-.457	.651
	사회적 기여	5.07	5.11	-.089	.929
	지적생산물의 장기보존 및 관리용이	5.53	5.89	-.822	.418
인지된 이용용이성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획득	4.53	4.72	-.391	.699
	셀프아카이빙을 통한 업무 감소	3.53	4.28	-1.315	.198
	지적생산물의 일괄적 관리	4.47	5.61	-2.435	.021
	기술 습득	4.20	4.44	-.507	.615
	유지보수 및 관리	4.20	4.83	-1.540	.134
인지된 리스크	기밀자료 누출 가능성	3.87	4.33	-1.054	.300
	경제적 부담	4.20	3.83	.774	.445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	4.07	3.56	.963	.343
	저작권 및 표절 불안	4.53	4.11	1.044	.305
주관적규범	타 기관의 평가	5.13	4.44	2.067	.047
	타 기관의 수용 의사	4.60	4.17	1.218	.232
정책적지원	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도	3.87	6.28	-6.284	.000

인지된 유용성에서는 학문적 명성을 통한 이미지 향상과 학술교류의 새로운 장 제공을 제외하고 접근성 향상, 사회적 기여, 지적생산물의 장기보존 및 관리용이에서 수용기관보다 비수용기관의 인지된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고, 인지된 이용용이성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수용기관보다 비수용기관이 높게 나타났다. 인지된 리스크에서 기밀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용기관이 비수용기관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그 외의 모든 세부 문항에서는 비수용기관이 수용기관보다 위험 인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의 리포지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타 기관의 수용 의사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수용기관이 비수용기관보다 더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수용의 영향요인 분석

최종적으로 수용요인이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용여부와 같은 명목척도는 더미(dummy) 변수로 재구성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구성차원별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F값이 5.077(p=0.0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의 수용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구성차원으로는 사회적 특성이 음(-)의 영향을, 다음으로 기관의 특성, 혁신저항특성, 그리고 시스템 특성은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용기관의 경우 개방형 리포지터리의 수용에 있어 기관의 행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실제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요인이 다소 낮게 나타나, 이 구성차원이 리포지터리 수용에 이르게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수용요인 구성차원의 영향요인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F
수용여부	상수	.651		1.515	5.077***
	기관의 특성	.064	.339	2.292***	
	시스템 특성	.082	.112	.646	
	혁신저항 특성	.094	.140	.909	
	사회적 특성	.100	-.591	-3.445***	

*: p≤0.1, **:p≤0.05, ***:p≤0.01

다음으로 수용요인에서 복수의 세부문항을 지니는 경우 각 문항이 수용요인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유의확률 p≤0.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모형은 종속변수를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용이성, 인지된 리스크로 하는 모형이었다. 주관적 규범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을 채택하지 못했다. 인지된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부문항은 접근성 향상이었으며, 다음으로 학문적 명성을 통한 이미지 향상, 지적생산물의 장기보존 및 관리용이 등의 문항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이용용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항으로는 유지보수 및 관리였으며, 다음으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획득, 지적생산물의 일괄적 관리, 기술습득, 셀프아카이빙을 통한 업무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문항으로는 저작권 및 표절 불안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밀자료 누출 가능성, 경제적 부담,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수용요인 세부문항의 영향요인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F
인지된 유용성	상수	1.012		-.003	7.754***
	학문적 명성을 통한 이미지 향상	.193	.030	.141	
	학술교류의 새로운 장 제공	.159	-.059	-.294	
	접근성 향상	.254	.276	1.371	
	사회적 기여	.151	.351	1.870*	
	지적생산물의 장기보존 및 관리용이	.172	.346	1.840*	
인지된 이용용이성	상수	.552		.020	15.758***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획득	.130	-.132	-.909	
	셀프아카이빙을 통한 업무 감소	.093	.048	.388	
	지적생산물의 일괄적 관리	.110	.475	3.650***	
	기술 습득	.108	.419	3.461***	
	유지보수 및 관리	.141	.300	2.168**	
인지된 리스크	상수	.564		5.383	2.322*
	기밀자료 누출 가능성	.136	-.269	-1.296	
	경제적 부담	.125	.286	1.410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	.111	.220	1.083	
	저작권 및 표절 불안	.180	.237	.942	

*: $p \leq 0.1$, **: $p \leq 0.05$, ***: $p \leq 0.01$

이들 영향 요인들은 모두 기관의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에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일수록 리포지터리 관련 홍보 및 세미나에서 인식 제고를 위해 강조해야 하는 부분들이다. 예를 들면 개방형 리포지터리에 대한 홍보나 교육세미나를 통해 개방형 리포지터리의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다른 유용성보다 강조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는 이용용이성을 보다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비수용 기관의 경우 저작권 및 표절불안과 기밀자료 누출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수용기관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안해소 전략이 홍보와 함께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당 기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기관과 비수용기관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법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조화된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된 기술확산 통합모델을 적용하였고 데이터 수집이후 타당도 분석을 통해 적용한 모델을 최적화시켰다.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기관 15개와 비수용기관 18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들 기관의 수용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수용여부에 따른 차이분석과 더불어 수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기관은 리포지터리 수용요인 중 인지된 유용성, 정책적 지원, 인지된 이용용이성, 주관적 규범, 인지된 리스크, 그리고 조직의 혁신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용기관과 비수용기관간의 수용요인에 대한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 중 수용기관은 기관의 위험요소 감수 의지와 타 기관의 리포지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서 비수용기관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비수용기관은 기관의 행정적 지원 정도와 지적생산물의 일괄적 관리의 용이성에서 수용기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용요인의 구성차원별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특성이 가장 많은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관의 특성, 혁신저항특성, 그리고 시스템 특성의 순으로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수용기관이 개방형 리포지터리 수용에 있어 사회적 특성요인인 기관의 행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실제 수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요인이 다소 낮게 나타나 기관의 행정적 지원이 실제 수용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 이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복수의 세부문항을 지니는 수용요인의 경우, 인지된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부문항은 접근성 향상이었고, 인지된 이용용이성은 유지보수 및 관리, 그리고 인지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문항으로는 저작권 및 표절 불안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각 세부요인들은 앞으로 개방형 리포지터리 확산을 위한 홍보나 교육에서 강조하거나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확산 통합모형을 통해 개방형 기관 리포지터리 수용에 어떤 수용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리포지터리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 기관 리포지터리의 도입여부 등과 같은 통제되지 못한 외생변수들이 다수 존재하고 표본으로 사용된 개방형 리포지터리를 수용한 기관의 수가 적어서 수정된 모델에 대한 완전한 검증과 도출된 결과만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앞으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화되고 정확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개방형 리포지터리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지현. 2011. 교수들의 기관 레포지터리 수용에 관한 연구: 혁신확산이론을 바탕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8(4): 141-160.
- 배정희. 2015. 『리포지터리를 위한 기술확산 통합모델 설계 및 수용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사학과.
- 배정희, 정영미. 2015. 기술확산 통합모형의 적용을 통한 리포지터리 수용요인 분석. 『20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국제학술발표회』. 2015년 5월 29일. 부산: 동의대학교, 228-241.
- 정영미. 2014. 일본의 리포지터리 확산과 성장 배경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43: 427-447.
- 황혜경. 2011. 기관리포지터리 수용 요인. 『2011년도 한국비블리아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년 11월 2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29-247.
- Crow, Raym. 2002. *The Case for Institutional Repositories: A SPARC Position Paper*. <http://works.bepress.com/ir_research/7/> [cited 2015. 9. 3].
- Davis, Fred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319-340.
- Lynch, Clifford A. 2003. *Institutional Repositories: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Scholarship in the Digital Age*. <<http://www.arl.org/storage/documents/publications/arl-br-226.pdf>> [cited 2015. 9. 1].
- Nicholas, David et al. 2012. "Digital Repositories Ten Years on," *Learned Publishing*, 25(3): 195-206.
- Nov, Oded and Chen Ye. 2009. "Resistance to Change and the Adoption of Digital Libraries: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0(8): 1702-1708.
- OAK Portal Home Page. <<http://www.oak.go.kr/>> [cited 2015. 10. 3].
- OpenDOAR Home Page. <<http://www.opendoar.org/>> [cited 2015. 11. 1].
- Park, Namkee et al. 2009. "User Acceptance of a Digital Library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an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29(3): 196-209.
- Ram, S. 1987. *A 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 <<http://www.acrwebsite.org/search/view-conference-proceedings.aspx?Id=6688>> [cited 2015. 9. 3].
- ROAR Home Page. <<http://roar.eprints.org/>> [cited 2015. 11. 1].

- Rogers, E. M. 1964. 『개혁의 확산』. 김영석, 강내원, 박현구 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Thong, Y. L. James, Weiyin Hong, and Kar-Yan Tam. 2012. "Understanding User Acceptance of Digital Libraries: What are the Roles of Interface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ontext,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57(3): 215-24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Junghee and Youngmi Jung. 2015.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Repository's Adoption Using the Revised IDT-TAM Model." *Proceedings of the KLISS 2015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228-241.
- Bae, Junghee. 2015. *The Design and Factor Analysis of the Repository-Technology Diffusion Integrated Model*. M. A. thesis. Dong-eui University.
- Hwang, Hyeakyung. 2011. "Acceptance Factors of Institutional Repositories."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ccasional Papers Series*, 229-247.
- Jung, Youngmi. 2014.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ts Policy Background of Repositories Proliferation in Japan."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43: 427-447.
- Kim, Jihyun. 2011. "A Study on Faculty's Adoption of Institutional Repositories(IRs) Based on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8(4): 141-160.
- Rogers, E. M. 1964. *Diffusion of Innovations*. Translated by Youngsuk Kim, Naewon Kang, and Hyungu Park. Seoul: Communication Books.

